

# 가지급금 변제여부, 업무관련성에 달려



**박규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일반적으로 회사, 특히 중소기업은 회사의 가지급금 계정을 다양하게 활용한다.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일시적으로 회사의 운영자금에 부족할 때도 있고, 그 자금 출처를 남길 수 없는 금원이 사용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물론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계정을 통해서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명백히 대표이사가 해당 금원만큼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회사 운영 목적으로 가지급금을 인출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상당을 변제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뭔가 억울하다.

회생·파산 절차에서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해당 가지급금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는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해둬야 한다. 회사를 위해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할 경우 리베이트나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어쩔 수 없이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법원도 인지하고 있다. 따라

서 완벽한 입증이 불가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자료(해당 금원이 영업직원에게 교부되었다는 사실 확인, 회사 내 자금일보(장부)상 현금시제반영 등)만 갖추어진다면 법원 또한 해당 금원이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커진다. 단순히 회사에 가지급금 변제 책임을 부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

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해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판결). 1인 회사이거나 가족회사여서 실질적으로 가지급금 인출자

가 회사로부터의 손익을 전부 부담하는 구조라고 하더라도 달리 판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판결).

반면 가수금은 어떻게? 회사가 회생·파산에 이르기 전에 어려운 순간을 극복하기 위해 회사에 거액을 입금시키는 대표자들도 많다. 이렇게 입금된 돈은 회계상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되고 회사는 대표자에게 가수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회사가 회생·파산에 접어들게 되면 다른 채권(대출금, 일반 대여금, 상거래채권)에 비해 후순위로 취급된다. 배당을 받든 변제를 받든 언제나 다른 채무를 먼저 고려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나 처리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도래했을 때, 대표자는 맹목적으로 회사의 재가를 믿고 거액을 투자하기보다는 회생·파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회사와 스스로를 위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 물론 회사의 가지급금 부분에 대한 소명 역시 도산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 아래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법무법인바른

# 단통법 폐지, 표심잡기로 그치지 않으려면



**기지수첩  
구남영 (산업부)**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표심을 잡기위한 공략이 쏟아져 나온다. 특히 정부는 민생안정을 목표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내걸며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를 추진 중이다. 당초 업계에선 단통법 폐지보다 개선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정부는 '폐지'를 해야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새다.

그도 그럴것이 정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하나로 중저가폰 출시 확대 등을 내세웠지만 여론은 좋지 않았다. 통신비 절감을 체감하려면 근본적인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 정

치권에서도 단말기 가격을 지적하며 단통법 폐지를 촉구했다.

과거 정부는 불법 보조금이 활기차자 지원금을 제한하고 보조금을 규제하는 단통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통신사들 간 마케팅 경쟁이 축소되면서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졌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줄었다.

실제 휴대폰 단말기 평균가격은 지난 7월 기준 약 87만3000원으로 2014년(약 62만원) 대비 41% 늘었다. 이 기간 소비자 단말기 구매 비용은 연평균 4%씩 증가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 평균상승률(1.62%)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반면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를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단통법 시행 전의 이동통신 시장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낮은 상황이다 LTE의 등장으로 이통사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

열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5세대(5G)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이통사가 과거만큼 지원금을 확대할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다.

또 정부가 알뜰폰 사업을 적극 밀어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단통법 폐지를 내세우는 것은 '표심잡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정부의 지원 아래 크게 확장된 알뜰폰 시장이 단통법이 폐지되면 대폭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단통법 폐지 시점은 알 수가 없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안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4월 총선 후인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표심잡기용이 아닌,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책이 탄생하길 기대해본다.

/koogija\_te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2월 26일 (음 17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솜씨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날이다. **48년생** 투자하지 않는 것도 손실을 내지 않는 방법의 하나이다. **60년생**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 일이다. **72년생** 불평 애기를 들어주니 감사. **84년생** 날이 바뀌니 영원한 것은 없다.
-  **37년생** 봄날이니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때이다. **49년생** 우물에서 바라본 하늘은 한계가 있다. **61년생** 계획을 세워야 나아갈 수 있으니 결과부터 행하지 마라. **73년생** 먼 여행은 다음으로 진행해보자. **85년생** 가까운 이웃이 형제보다 낫다.
-  **38년생** 참는 것이 불운을 이기는 법이다. **50년생** 먹는 것에 유의해야 하는 날. **62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온종일 마음이 즐거운 날이다. **74년생** 비운 뒤에 당이 굳는다고 했으니 재도전. **86년생** 상대의 단점을 건드리면 나에게 해가 된다.
-  **39년생** 사랑이 찾아오니 자손에게 기쁜 일이 생긴다. **51년생** 마음이 상하고 몸도 힘들다. 재물은 들어온다. **63년생**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날이다. **75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다. **87년생** 흘러가는 대로 버려두는 것이 상책이다.
-  **40년생** 가족의 협조로 일이 잘 성사된다. **52년생** 항상 태양은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말자. **64년생**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시비도 있다. **76년생** 계획한 일의 계약이 성사된다. **88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지지 실망은 금물이다.
-  **41년생** 가만히 있는 것이 내 재산을 지키는 것. **53년생** 귀신은 때에 따라 사람을 도와준다. **65년생** 다투어 생기기 쉬운 날이니 자중하는 것이 좋다. **77년생** 직장에서 능력이 펼쳐진다. **89년생** 날개를 얻은 격이니 뜻한 바를 이룰 수가.
-  **42년생** 자식이 하세가 있다면 부모를 힘들게 할 것이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 **54년생** 물이 깊어지고 고기도 모인다. **66년생** 천천히 돌아가고 서두르지 마라. **78년생** 삼각관계는 부끄러운 일. **90년생** 시험에 도전했다면 칠성팔기의 정신으로.
-  **43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꿀을 모을 수가 없다. **55년생** 귀신은 인간을 도와주기도 하고 겁주기도 하는 존재라. **67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절제가 필요한 날. **79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다. **91년생** 시시비비 가라다가 내 실수도 나온다.
-  **44년생** 새해는 입춘을 기점으로 적절하다. **56년생** 사람을 믿는 것이 큰 자산이다. **68년생** 고인 일은 소나 말의 뒷발질이 더 무서운 법이다. **80년생** 부자가 되려면 신운을 우선. **92년생** 삼재는 용미 원숭이며 쥐띠이니 삼재 기도를 해보시라.
-  **45년생** 새로운 만남에 방심은 금물. **57년생** 어디서 부는 바람이 마음을 흔든다. 갈등이 생긴다. **69년생** 변동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앞만 보고 전진하라. **81년생** 겸손이 미덕이다. **93년생** 인기 있는 사람의 흠결을 찾으려고 하지 말 것이다.
-  **46년생** 시작은 미약하였어도 그 끝은 창대하리라 구약성경의 한 구절. **58년생** 행복의 원천은 가족에게 있으니 화목이 우선. **70년생** 시간을 갖고 기다리자. **82년생** 먼저 양보하는 습관을. **94년생** 대기만성이란 용두사미의 반대말 인격이니.
-  **47년생** 호사다마 好事多魔처럼 종일 즐겁다. **59년생** 운이란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다. **71년생** 기쁜 일일수록 몸을 낮추니 과실을 얻는다. **83년생** 팍팍한 삶에서 교육은 희망. **95년생** 초년 복 좋은 것이 말년 복 좋은 것보다 못하다.



## 김상회의 四季 일인 만능시대

대단한 시대가 되었다. 챗지피티 시대에 맞게 지식은 이제 그 누구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가 되었다. 누구라도 관심만 있으면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과 노하우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개인 혼자서 스스로 직접 생활 공간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고 수리하거나 하는 일인 능력 발휘 시대이다. DIY 즉 '디 아이 와이'라고 하는 "너 자신이 직접 만들어라"라는 뜻의 영어인 "Do it yourself"의 앞머리 글자의 준말이다. 전문가나 전문 업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재료를 사서 조립하고 꾸미고 하는 개념인 것이다.

전문적인 일든 단순 노동이든 인력이나 인건비가 점점 상승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상업적 노력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전문가에게 맡겨도 자신의 성향이나 생각을 일치시키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기에 비용과 취향을 반영한 신조류라고 할 수 있겠다. 서양에서는 세계 제2차대전이 끝난 무렵부터 성행하기 시작한 풍조라 한다. 우리나라는 몇 년 전부터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이 DIY를 통해 이름을 알리게 되기도 했다. 따라서 자기 만족도도 높는데 비용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일 수 있으니 현대사회에 맞는 일인 만능주의의 모습이기도 하다.

이런 풍조는 단순히 간단한 건축을 떠나 여러 분야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개인의 창의력이 겸비된 아이디어의 결과물들이 많은 사람에게 어필하고 있다. 일인 만능시대라 하여 전통 장인의 깊이와 미학까지 닮기는 힘들겠지만 상당한 수준의 실용과 산박함을 갖춘 것이다. 과거에는 선조와 부모들은 손재주가 있으면 여기저기 불려 다니느라 몸만 고달프다고 보았다. 이는 인건비가 할하던 시절의 얘기다. 요즘은 한 가지 재주와 특기만 잘 살려도 귀하신 몸이다. 시대가 변했음이 극명하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6시

###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노의 열대야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4	8	
1			4	
	8	4	6	1
2				5
	8			7
3	9			6
	2		6	7
	3			8
6	3	5		

		8	2	7	
3	1		9		
	8	3		4	5
4	1			6	7
5	9			1	8
6	7		4	9	
		5			4
8	9	2			

7	2	9	6	8	1
8	6	9	7	1	8
9	1	8	2	9	6
9	7	8	1	2	6
1	2	6	8	9	7
6	8	9	7	1	2
2	9	6	8	1	7
8	9	7	8	2	1
1	8	1	7	9	6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37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83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